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

## 2만달러 넘어선지 12년만에 선진국 문턱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다. 2만달러를 넘어선지 12년만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해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 대비 5.4%(2.5%) 증가한 3만1349달러(3449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지 12년만에 3만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실질GNI는 전년대비 1% 증가했다. 명목GNI는 2.9% 성장했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0.3% 상승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7% 성장했다. 2017년 3.1%를 기록하며 3년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가 다시 2%대로 내려앉은 수치다. 이는 2012년 2.3%를 기록한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2.8%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4.2% 감소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2.8%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소비와 수출 증가세도 확대됐지

만 건설과 설비투자는 각각 4%, 1.6%씩 줄었다.

저축률과 투자율은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34.8%다. 국내총투자율은 0.8%p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 국외투자율 역시 4.4%로 0.6%p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속보치와 동일하게 전기대비 1% 성장했다.

다만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0.1%p 상향되고 서비스업은 0.1%p 하락 수직됐다.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율과 수출은 각각 0.6%p, 0.7%p 상향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3%p 하락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뜻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게 됐다. 만약 환율 등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가정하면 10년 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과 프랑스, 영국은 불과 2, 3년만에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시 3만달러 대로 떨어졌다"며 "지출항목 고령화나 소득·고용양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시스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 함께 처리” vs 재계 “신중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 학계 등에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소유자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업 목회’로 오해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장에서

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미 여러차례 국회를 다녀왔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중진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4일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대표를 찾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을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회가 추천한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위원장은 “재산권 보호나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가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뉴시스

## 환경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전북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업인 출하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 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증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친환경축산

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전북농관원 및 시·군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김영태 기자

## 무재해·무결점 현장 관리로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 농어촌공사 전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41지구 1043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도 농촌용수, 배수개선, 경지재정리사업 등 생산기반정비사업 41지구에 1,043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상습 한해지역에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4지구 501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양수장 등 농업용수 확보 시설을 구축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지역에는 배수개선사업 20

지구 44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배수문 등 침수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급년 상반기까지 대규모경지정리사업 7지구 99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박종

만 본부장은 “사업추진시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 안전관리·품질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다”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마음껏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 전북은행,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에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5일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9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송형섭 전주시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주시의회 이남숙 시의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호 사무처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 최운자 회장,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 박은화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꽃밭정이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 보호,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래되어 낡은 손상된 책상과 의자 등 내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낡은 책상, 의자, 수

납장을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하고, 방과 후 학습에 필요한 화이트보드, 계산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했다.

임재원 전북은행부행장은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9 설날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JB희망의 공부방, 2019 희망 나눔 신년음악회,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은행, 차세대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디지털금융서비스 편의성 강화를 위해 차세대 모바일 홈페이지(<https://m.jbbank.co.kr>)를 개발하고 지난달 28일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 차세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앱 설치와 공인인증서 없이 통장개설은 물론 카드신규, 대출, 전자금융개설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북은행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요특징으로는 실명확인 간편화, 맞춤형대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대신 핀번호만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고 전자금융을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 편의와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특허출원한 자동추천서비스인 '맞춤대출'은 고객맞춤형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서민금융정책상품을 포함해, 고객이 선택한 조건에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한도와 금리를 산출한다.

추후에는 대출 뿐 아니라 예·적금 등 금융상품으로 자동추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가입 시 은행담당자가 1대1로 지원해주는 기능이며 이를 통해,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더라도 전북은행 직원의 1대1 고객Care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차세대 모바일 앱으로 고객을 위한 디지털금융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이다”며,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